자승 대종사 49재 엄수…“전법 유훈 실천”

조계종, 자승 대종사 재적본사 용주사서 봉행

총무원장 진우 스님 비롯 각계 주요인사 다수 참석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지난해 11월 29일 원적에 든 조계종 제33·34대 총무원장이자 상월결사 회주인 해봉당 자승 대종사의 49재를 맞아 사부대중이 대종사가 남긴 가르침과 유지를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월 16일 자승 대종사의 생전 재적본사인 제2교구본사 화성 용주사 관음전에서 ‘해봉당 자승 대종사 49재’를 봉행했다. 49재에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중앙종무기관 교역직스님들,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와 원로의원 스님들, 전국교구본사주지스님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과 의원스님들,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과 비구니스님들, 대종사가 총무원장 재임 당시 신설한 사회노동위원스님, 주윤식 중앙신도회장과 각 단체장 등 500여 대중이 참석했다. 또한 정관계를 대표해 황상무 시민사회수석과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 이원욱·박광온·김영진·백혜련·김승원 의원, 오영훈 제주지사 등도 함께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자승 대종사 영전에 헌다하고 있다.

49재는 명종을 시작으로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의 헌향,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헌다가 이어졌다. 이후 종사영반은 어산종장 덕림 스님과 도피안 스님이 집전했다. 사부대중은 자승 대종사 영전에 삼배를 올리며 대종사가 생전 강조한 전법의 가치를 되새겼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참석대중을 대표한 추도사를 통해 지난 49일이 어느 누구에게도 일상적인 시간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불교의 2600년 역사와 한국불교 1700년 역사는 시대 흐름에 부응하면서 선지식의 안목과 대중의 지혜가 모여 일신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며 “이런 명안종사와 지혜대중의 법고창신 정신이야말로 불교사를 이끌어온 저력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전도의 길을 떠나라’는 부처님 가르침은 자승 대종사의 ‘전법합시다’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또 “혹여 일신의 안위에 안주하고 싶은 중생심이 터럭만큼이라도 일어난다면 그때마다 당신께서 온몸으로 일러주신 사자후를 거듭 상기해야 한다. 결국 기억하고 따르는 것은 남아있는 대중의 몫이기 때문”이라고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끝으로 ‘타로첨류귀대해(墮露添流歸大海)하고 비진착토합고산(飛塵着土合高山)이로다’라는 짧은 두 줄의 시를 올리며 자승 대종사 49재를 장엄했다. 스님은 “떨어진 이슬방울은 흐르는 물에 더해지면서 큰 바다로 돌아가고, 날아다니던 티끌 먼지는 흙과 인연을 맺으면서 태산에 합해지네”라고 부연했다.

용주사 주지 성효 스님은 문도를 대표해 참석대중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스님은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주신 큰 뜻을 저희 문도들이 전 종도와 부처님 법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후 참석대중은 생전 자승 대종사가 강조한 가르침인 ‘부처님 법 전합시다’를 삼창하면서 49재를 마무리했다.

“대종사 유지 이어 대학생 전법 진력”

서울 봉은사도 49재 봉행…1천여 대중 참석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참석 7재까지 전통의식으로 챙겨

“자승 대종사이시어! 속환사바하소서!”

지난해 11월 29일 원적에 든 해봉당 자승 대종사를 보내는 사부대중의 슬픔이 서울 강남 봉은사 경내를 채웠다. 그러면서도 사부대중은 자승 대종사가 남긴 유지인 ‘대학생 전법’ 원력을 계승할 것을 다짐했다.

서울 강남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는 1월 16일 경내 법왕루에서 ‘해봉당 자승 대종사 49재’를 봉행했다.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운집한 이날 49재에는 상월결사 총도감 호산 스님(봉선사 주지), 은해사 주지 덕조 스님,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중앙종회의원 심우·선광·삼조·일화 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윤재웅 동국대 총장, 이영경 동국대 WISE캠퍼스 총장, 채석래 동국대 의료원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자승 대종사와 생전 인연이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참석했으며, 태영호·유경준·손석준 국회의원 등이 49재에 참석해 대종사를 추모했다.

49재는 명종 5타로 시작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돈관 스님의 헌향, 호산 스님의 헌다가 이어졌으며 대중을 대표해 전 포교원장 지홍 스님, 비구니 원로 운달 스님, 최진식 봉은사 신도회장, 이명숙 봉은사 신도회 사무총장이 자승 대종사 영전에 꽃을 올렸다.

입정 이후에는 자승 대종사의 생전 육성 법문이 이어졌다. 생전 육성 법문은 자승 대종사의 2013년 총무원장 신년사, 2017년 신년간담회, 2013년 제34대 총무원장 취임사, 2023년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향사로 이어졌고, 사부대중은 대종사가 제시한 전법과 한국불교 중흥의 원력을 다시 한 번 되새겼다.

상월청년합창단과 봉은국악합주단은 자승 대종사를 추모하며 열반송과 무상게 등의 조가를 합창했으며, 조계종 어산종장 동환 스님은 화청으로 대종사를 기렸다.


봉은사 경내에서 도량잡요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어산어장 인묵 스님의 종사영반 의식이 이어지자, 참석 내외빈들은 자승 대종사의 영전에 헌화하며 대종사를 추모했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49재에 참석한 내외빈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며, 자승 대종사의 유지인 ‘대학생 전법’ 원력을 계승·발전하겠다고 다짐했다. 원명 스님은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신 덕분에 회주 스님의 초재부터 49재까지 모실 수 있었다”며 “오늘 49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의례를 전통의례에 맞춰 여법하게 모시려 했으나 그동안 부족했던 점이 많았던 것 같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를 비롯한 봉은사의 대중들은 회주 스님께서 간곡하게 당부하신 ‘전법, 특히 대학생 전법 포교에 진력하겠다’고 종단의 스님들과 불자들 앞에서 약속드린다”면서 “슬픔을 극복하고, 회주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수행과 전법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전법선언 제창 후 자승 대종사의 위패와 영정은 법왕루를 나와 봉은사 도량을 돌며 사부대중에 마지막 인사를 전했으며, 소지의식을 진행하며 49재는 마무리됐다.

자승 대종사 49재에 참석한 대중은 대종사의 유지인 ‘대학생 전법’을 이어나겠다는 의지들을 공히 피력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자승 대종사의 일평생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실천행으로 살아가셨다. 대종사가 던진 전법의 화두를 사부대중들이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다. 49재까지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은 “자승 대종사께서는 대학생 전법과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불교를 생전에 강조하셨다. 앞으로 대학생 전법에 사부대중이 온 힘과 정신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상월결사에서도 대학생 전법 관련 운영과 동아리 창립 및 지원 등의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다. 내일 열릴 이사회에서 최종적 결론을 짓고, 전법불사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준우 봉은사 대학생법회 회장(21)과 박채현 부회장(21)도 대학생 전법에 최선을 다할 뜻을 밝혔다. 정 회장은 “동국대 학생이자 봉은사 대학생법회 회장으로서 대학생 전법에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자승 대종사의 모습을 친견해왔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컸다”면서 “앞으로 봉은사 대학생법회 회원들은 부처님 법을 바르게 전해 불교 중흥을 이루는 데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저희 대학생 불자들이 대종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부처님 법을 열심히 전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상월결사 이사장 돈관 스님 선출

사무총장 일감 스님 임명 사무실 개소…불사 본격화



사단법인 상월결사 신임 이사장에 돈관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사단법인 상월결사(이하 상월결사)는 1월 17일 봉은사 구생원에서 202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정기총회에서는 자승 대종사의 원적으로 공석이 된 이사장 선출이 이뤄졌다. 이사들의 만장일치로 이사장에 선출된 돈관 스님은 취임 일성으로 자승 대종사가 던진 ‘대학생 전법’의 화두에 매진할 뜻을 밝혔다. 스님은 “상월결사에는 저보다 공적이 많은 분이 많다. 그래서 이사장직을 맡아도 되는지 고민이 많았다”면서 “하지만 ‘일을 덜 했으니 더 많이 일하라’는 자승 대종사의 뜻으로 알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른이 남기신 화두인 한국불교 중흥, 대학생 전법 불사에 매진하며 상월결사 정신을 이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상월결사는 법인 사업 전반을 책임질 사무총장에 일감 스님을 임명했다. 임명장 수여 직후 일감 스님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은 소감을 전했다.

인사 안건 처리 후에는 대학생 전법위원회 운영규정을 사무국으로부터 보고받아 승인했고, 이어진 기타 안건에서는 이사들의 건의가 개진됐다. 덕문 스님은 “이제 대학교가 새내기 입학과 함께 새 학기가 시작된다. 법인에서 진행하려는 불교동아리 지원 방안이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호산 스님도 “현재 대학 불교동아리들이 상월결사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전법 지원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고 그 절차도 복잡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상월결사는 정기총회 직후 법인 사무소 현판식을 열었다. 법인 사무소는 봉은사 인근 상가건물 4층에 마련됐다. 신중일 기자

